

말씀의 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1~38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삶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참고 견디며 육신적인 손해를 볼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반응하며 살아야 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 인답게 산다는 것이 때론 부담이 되고 때론 짐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인 마리아, 그녀에게 주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약속은 육신적으로는 축복보다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나이가 10대 였고, 이미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큰 부담을 짊어지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씀이 잉태되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 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이뤄짐을 믿은 마리아의 행동을 성경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자 합니다.

첫째, 말씀이 내게 이뤄짐을 믿는 자는 삶으로 가져가서 확인합니다.

눅 1:39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40 사가랴의 집 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마리아는 천사의 전해준 말을 듣고 말씀을 자신의 몸에 이룬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갑자기 엘리사 벳의 집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천사가 한 말 중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이미 배가 불렀 다는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뤄진 현장을 향해 달려가 는 마리아의 행동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북쪽 지방인 갈릴리에 살고 있었고 반면 엘리 사벳은 남쪽 지방인 유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6개월이 넘도록 임신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을 보면 평소 왕래도 자주하지 못하고 지내던 사이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이뤄진 현장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마리아처럼 달려가는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뤄짐을 경험하고 삶 으로 가져가서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는데 이러한 열심과 움직임이 있길 바랍니다. 아마 마리아는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언니는 나이가 정말 많은데 진짜 이 일이 이뤄졌을까하며 흥분하며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가져감은 이처럼 흥미롭고 행복 한 일입니다. 마리아가 먼거리에 살고 있는 언니에게 달려간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자기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언니를 빨리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도무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 황에서 둘 다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누구한테도 나눌 수 없는 동병상련과 같은 공통적인 체험 을 둘 다 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신앙적 경험을 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힘 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믿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안의 지체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처럼 이런 믿음의 교제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공통점이 생깁니 다.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고 끈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3개월간 믿음의 선배 엘리사벳에게서 위로 받고 격려 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 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둘째, 말씀이 내게 이뤄짐을 믿는 자는 확증을 계속 모으고 붙들니다.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 문에 들어서자마자, 엘리사벳으로부터 놀라운 예 언을 듣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알리가 없었던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수대 된 사실을 영감있게 예언했고, 마리아는 자기에게 이뤄진 일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금 확증 받으며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가서 말씀의 이뤄짐을 확증받고 싶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 씀이 확증이 되면 그것이 엄청난 믿음이 기초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주시는 모든 크고 작은 사인 들이 믿음으로 그대로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말구유에 아기를 눕혔던 그 시간, 천사들은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동 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탄생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눅 2: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 각하니라

마리아가 목자들을 만나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이 한 번도 들지 않았을까요?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 그리고 아이를 낳힐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눕혀야하는 기가 막힌 상황,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 떠올랐다면 비참했을 것입니다. ‘왜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 는데 하나님은 방하나 주실 수 없었던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사인을 느끼자 마자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빠릅니다. 목동들이 흥분해서 천군 천사가 전하여준 말을 전했다는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은 때때로 흔들리 고 상황과 환경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뒷받침할 만한 사인을 주실 때 금방 그것을 붙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붙들니다. 확실하게 붙들니다.

누가복음 2장 후반부는 예수님이 12세가 되었을 때, 온 가족이 절기 행사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두고온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올라갔다가 성전에서 논의하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집에 있어야 할 줄 모르셨나이 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다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붙들었습니다.

눅2: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리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 음에 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바닥이 튼튼한 사람은 주시는 말씀들, 주시는 사인들이 모두 믿음으로 견고하게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심령에 이루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새기고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삶으로 가져가서 그 이뤄짐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들과 사인들을 붙들고 계속 모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충만해지는 두란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 원드립니다!

2016. 1. 10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1. 17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누가복음 15장 1~10절

말 씀 선포 ----- 이 강화 목사

"속 사람의 변화가 가장 귀합니다"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